



한라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민 신뢰 확보”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의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등을 위해 15일 제주를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협약 (16일)에 앞서 이날 한라일보를 방문해 반부패 협력 강화는 물론 도서 지역 택배 부담 완화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계획 등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공포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부정한 이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의무와 하지 말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의 반부패·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하는 한편,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달 18일 LH 사태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됐고 반부패·청렴 혁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오늘(15일) 있었던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는 어



15일 한라일보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반부패 협력 강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혁신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참여 필수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해소 방안 모색 위해 간담회
다양한 의견 국토부 전달...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결과 존중을” 요청

할 5개의 제한행위를 포함해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갈등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덜고, 국민들은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져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국민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6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떻게 개최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도서지역의 택배비에 대해 검토하게 됐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상품이 배송될 때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용은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작게는 6배부터 많게는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서비스 이용과 관련 시민단체, 전자상거래업

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서 지역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가.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실 관계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수산민연대, 제주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지역 소비자 택배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서 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추후 관련 정책에 미비점

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부동산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되자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즉각 직무 회피 조치를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오늘(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답=조상윤 편집국장

“강정마을 갈등 종식, 상생·화합에 최선” 좌 의장, 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개회사서 피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강정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며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좌 의장은 또 전 도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의와 관련, 제주도민 집단 면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지난 회기에 도의회에서 채택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대권 도전에 앞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정책 결정은 도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제도개선의 동력을 얻고 법적

지위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도지사의 사퇴를 우려하는 지금이 아니라 지사 재임기간 내내 역점을 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제주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해기자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폐지가 답” 고은실 의원, ‘완전공영제’ 전환 공론화 제안

매해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승승장과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인 버스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대표·사진)은 15일 제9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손실이 불보듯 뻔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17년 준공영제 이전 도내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명인데, 2019년에는 6485만명으로 15% 정도 증가한 반면 버스는 161%, 버스종사자는 247%가 증가했다”며 “과연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대중교통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게 낫다”며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2021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는 '2021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를 연다. 이 강좌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깃든 제주어를 통하여 잊혀가는 제주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1. 7. 1.(목) ~ 7. 29.(목)
매주 화요일, 목요일 19:00~22:00
- 장소: 한국리더센터 제주교육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근처, 청사로 77)
- 대 상: 제주도민 선착순 20명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1. 6. 17.(목)부터
- 신청 방법: 제주어연구소 누리집(www.jeju999.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jeju999@hanmail.net)으로 보내 주십시오.
- 문의 전화: 064-722-2203
- 수 강 료: 없음
-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 교육 내용

강좌	날짜	강의 내용
제1강	7월 1일(목)	제주어의 이해
제2강	7월 6일(화)	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제3강	7월 8일(화)	음식으로 배우는 제주어
제4강	7월 13일(화)	농사일로 배우는 제주어
제5강	7월 15일(목)	바닷일로 배우는 제주어
제6강	7월 20일(화)	세시풍속으로 배우는 제주어
제7강	7월 22일(목)	굿 속의 제주어
제8강	7월 27일(화)	동화 속의 제주어
제9강	7월 29일(목)	주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Corporation aggregate, The Jeju Dialect Institute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모집
교육시간: 19시~22시
교육내용: 전기(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 의: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 의: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 의: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서,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서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cs.co.kr)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 · 더덕, 씩씩병, 군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필필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알은 미생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뿌리 깊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스비질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9종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